

오늘 읽으실 본문은 우리가 이삭에 대해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또한 히11:9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대한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게, 많은 분량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 이삭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이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이삭이 중간중간 언급이 되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에도 등장은 하지만, 대부분은 이삭이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삭이 등장을 하고, 야곱의 이야기에 이삭이 등장을 하여 조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얻기 위한 말씀에서도 이삭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삭은 존재감 없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인물일까요? 이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온 대로 심약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인물이 말씀의 중심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만 기억에 남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여기는 데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 속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본보기로 삼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본받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이삭의 시각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여행을 가지고 깨우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가득 실어서 떠납니다. 아마도 어디 멀리 가서 번제를 드리시려나 봅니다. 삼일 길쯤 갔는데 종들에게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이 나무를 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칼을 잡아,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이삭은 조금 당황하였지만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칼을 들어 올렸을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급하게 아버지를 불러서 이삭을 잡으려 하는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음성이 들린 후에 뒤를 돌아 보니 한 숫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을 풀어주었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이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산을 내려 왔습니다. 이제 종들을 만나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말씀은 이삭의 역할 면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구약에 나타나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우리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증(illustration)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모리아 산’, ‘번제로 드림’, ‘어린양’, ‘번제할 산으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번제에 바쳐질 아들’ ‘자신을 잡으려고 결박하여 칼을 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등등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과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는 대속제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자신의 아버

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팥던 우물을 파다가,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우면 옆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파고, 또 메우면 또 이동하여 또 우물을 파고, 또 메우면 또 파는 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교회를 신부로 삼아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었고 사탄 마귀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백배를 얻었고 양과 소는 떼를 이루고 종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기뻐할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 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한탄하고 원망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소와 양을 먹이고 농사를 짓는 이삭에게는 꼭 필요한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옆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 사람들이 메우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마침내 이삭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명수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려 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은혜를 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우물을 파야 합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사탄 마귀는 쫓겨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이 그랄땅에 왔을 때 받았던 약속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에서와 야곱의 본 모습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삭도 이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아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몸 부림 치는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아들인 야곱을 축

복하며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믿음이 순종이요 순종이 믿음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은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존재감은 이 순종을 통한 믿음 안에서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한가지부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